

나는 정태영으로 이 기사를 썼어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쌍포'가 살아났다. 전진우(26)와 콤파뇨(29)의 동반 활약을 앞세운 전북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까지 18승 6무 2패(승점 60)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김천 상무(12승 7무 7패·승점 43)와의 간격은 이미 17점 차다. 전북이 6연패를 당하고 김천이 6연승을 해야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은 최근 22경기 연속 무패(17승 5무)로 이 부문 역대 공동 3위에 오를 정도로 상승세다. 게다가 김천은 10월이면 팀 주축인 고참 선수들이 전역한다.'